

대통령 ‘역주행’ 국정 혼란 가중

검찰 수사 거부 이어 국회 추천 총리도 입장 번복

특검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야당 제안 책임총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민심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주행은 결국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5·7면〉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총리가 박 대통령의 제안과 다르다”면서 “상황이 변했다.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방안에 변동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야권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총리를 추천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

국, 그동안 야권이 모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이 누구를 총리로 제안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강경한 기류는 청와대가 ‘탄핵 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국정정상화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같이 청와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수습책에 대해 야권과 국민 사이에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계속 꼼수를 부리며 시간을 끌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야권은 다른 대안을 찾기 못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각각 확정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했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비주류 측파대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정국은 급속도로 탄핵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 확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순실, 국회 청문회 나온다

다음달 6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다음달 6일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정조사에 필요한 1·2차 청문회를 다음달 5일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차 청문회에는 기업 증인들이 출석하고,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등 사건의 핵심 인물과 전직 공직자들이 출석한다.

오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

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3·4차 청문회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을 비롯,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대 그룹 총수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여야 3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한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는 25일로 개관 1주년을 맞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화려한 야경. 문화전당은 광주 도심 지형을 바꿨을 뿐 아니라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로운 미래를 기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 문화의窓’ 260만이 즐겼다

문화전당
개관 1년

상 문화의 새 지평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5일로 개관 1주년을 맞는다. 문화전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광주의 문화산업과 미래를 개척할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개관 1년을 맞아 문화전당의 성과와 과제, 주요 현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관련기사 17면〉

문화전당은 개관 1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약 가

브랜드 공연 세계 40개국에 진출…킬러콘텐츠 없어 아쉬움

문화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대표 문화공간 도약 가능성 확인

능성을 확인했다. 개관 1년간 방문 관람객이 무려 260여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외 주목을 받은 게 이를 방증한다고 문화전당측은 설명했다.

21일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개관 이래 모두 33개 전시·82개 공연·97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기획·상설공연, 창·제작공연 등 모두 55만 여명이 찾는 등 관람객이 260여만명을 기록했다.

문화전당이 표방해온 ‘아시아 문화의 창’(窓)으로서 역할도 두드러졌다.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와 아시아 무용단을

창단하고 아시아의 신화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인디라간다국립예술센터 등 아시아 문화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전시와 축제를 열었다. 문화전당 브랜드 공연물을 해외에 선보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문화전당 개관 작으로 선보인 호추니엔의 작품인 ‘만 마리의 호랑이’ 등 해외기관, 작가들과 공동제작한 작품 19개가 대표적이다.

문화전당은 ‘ACC브런치콘서트’를 비롯해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들려주는 대중적인 음악회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인문학 강좌,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공연·전시 콘텐츠는 새로움과 참신함을 찾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체 제작한 공연물이 해외 40여개 국에 소개됐지만, 수익모델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한다는 문화전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이 즐겨 찾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창조경제센터 멈추나

도의회, 내년 운영예산 10억 사실상 전액 삭감

광주시의회, ‘車산업 연관’ 10억 반영 고민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원조례안이 보류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도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할 계획이지만, 광주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권국(국·목포 2) 의원은 21

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예산(도비·출연금) 10억원 전액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상임위원 간 의견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예산 10억원 반영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해당 상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택(민·동구 1)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삭감폭인 분위기이지만, 미래 전환

경자동차 관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